

이슈분석

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2
Ⅱ. 수도권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 4
Ⅲ. 도요타자동차 부진 원인과 위기극복 노력 6

경제동향

Ⅰ. 해외경제 10
Ⅱ. 국내경제 11
Ⅲ. 중소기업 12
Ⅳ. 금융시장 14
Ⅴ. 자금흐름 15

CEO 라운지

Ⅰ. 글로벌 녹색규제의 현황과 전망 16
Ⅱ. 중소기업 옴브즈만 18
Ⅲ. 서평 20

경제지표

경제지표 22

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수요불안에 기존설비마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감소가 불가피

■ 중소제조업의 18.2%(과거 5년의 2/5 수준)만이 올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할 계획

○ 통계집계를 시작한 '04년부터 5년 동안 설비투자를 실시한 업체는 연평균 40.5%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그 수가 급감하였고, 감소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중

(단위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40.1	39.0	39.5	41.4	42.3	25.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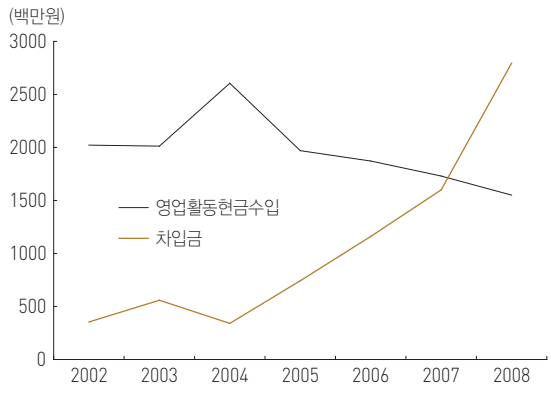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 자금제약이 설비투자를 지연시키는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수요가 여전히 불안정한데다 설비마저 과잉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과거 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빌려온 차입금의 규모가 급증하며 설비투자 실시에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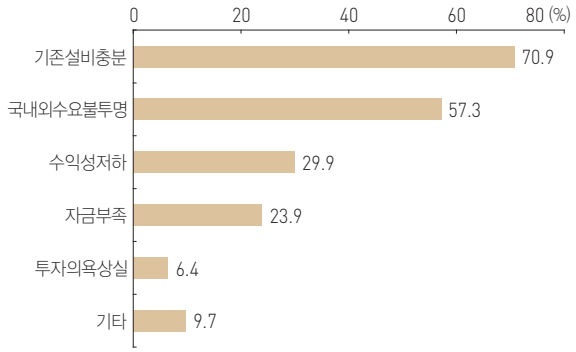
○ 하지만 자금제약보다는 국내외 수요가 불투명(57.3%)할 뿐 아니라 이미 기존설비가 과잉상태(70.9%)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설비부진의 가장 큰 이유

중소제조업 현금흐름(업체당 평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 이런 상태에서 치밀한 전략없이 중소기업 설비자금 대출을 확대하게 되면 과잉설비를 더욱 부추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향후에는 연구개발 사업화 및 녹색성장과 연계된 설비투자 정책을 확대할 필요

■ 신제품 개발과 연계된 신규설비투자 지원,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설비투자 지원방식을 확대할 필요

❍ 현재로선 기존 제품과 공정에 변화를 주지 않고 설비투자를 확대할 유인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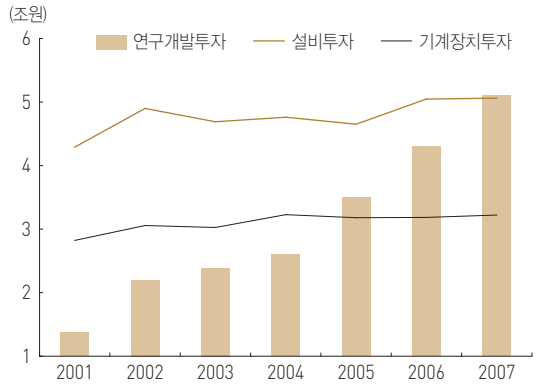
■ 우선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해온 중소제조업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

❍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07년도에는 전체 설비투자(건물 및 토지 포함) 규모를 초과했고, 이로 인해 특허출원이 '09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특허의 72.6%까지 증가

❍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개발된 신제품 및 신공정도입이 지연 또는 사장될 위험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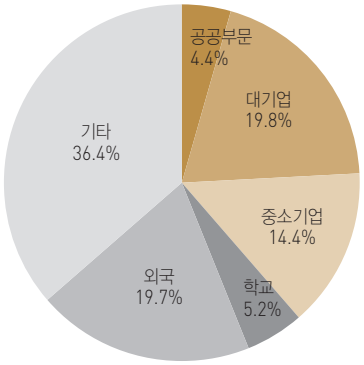
❍ 대부분 3년 후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중소기업의 기술은 중장기적 비전을 통해 기획된 대기업 기술과 비교하여 가치가 진부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

중소제조업 투자 항목별 비교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권리주체별 특허출원 현황



자료 : 특허청

■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녹색금융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경기불확실성으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중소제조업이 신속하게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음

· ESCO 사업은 정부가 '92년부터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ESCO 기업)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중소제조업)를 연계하여 개발 및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김영훈 연구위원(02-729-6369)

Ⅱ. 수도권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

주택시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급등

’09년 2월 이후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도달

❍ 서울 등 수도권 전세가격이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가격보다도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월대비 상승폭도 크게 확대되는 등 급등 양상

· 최근 서울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 매매가격, 전세가격) :
5월(0.1, 0.2) → 6월(0.4, 0.5) → 7월(0.6, 0.7) → 8월(0.5, 0.8)

❍ 특히 강남 아파트의 경우 최근 3개월 연속 전월대비 1%이상 급등

전세 급등 현상은 멸실 가구 증가 및 이사철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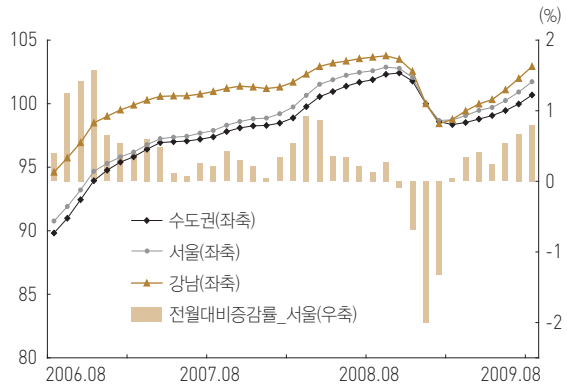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멸실 가구 증가분에 비해 부족한 공급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 서울의 멸실 및 공급 가구 수 추이(멸실 호수 : 공급 호수) :
’07(24,973 : 12,145) → ’08(18,098 : 11,669) → ’09^{p}(31,061 : 11,074)

❍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계약 증가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고속도로 및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교통호재 등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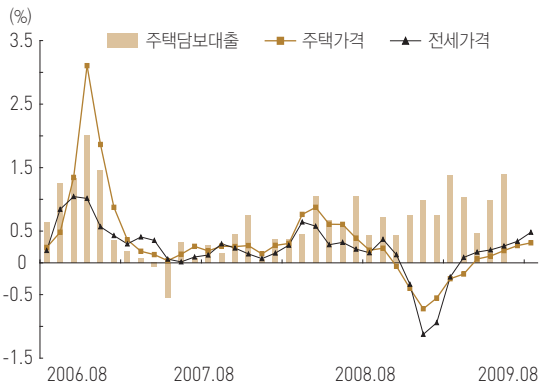
그러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된 멸실 가구 및 1~2인 가구의 증가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처음 나타난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의 급등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

수도권 전세가격 추이



주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는 2008.12 = 100
자료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 증감률



주 : 전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전세가격 급등을 야기

■ 가장 큰 원인은 사상 최저 금리와 맞물려 주택대출이 급증하면서 버블 우려를 낳을 정도로 급등한 주택가격이 전세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

❍ 변수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의 결과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 주택가격 상승 → 전세가격 상승의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주택 버블 논란에서 보듯이 주택가격과 주택대출 두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집값 상승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결과▐

귀무가설	F-Statistic	유의확률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10.6787	0.0017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20.9734	0.00002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원인이 아니다	6.04927	0.0166

자료 : 귀무가설은 보통 검증하고자하는 가설의 반대가설을 의미하며,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5 미만일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

❍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하면서 기존의 전세수요와 맞물려 전세급등을 야기

· 서울 아파트의 주택구매력지수(중위가구소득 ÷ 대출상환가능소득 × 100)는 '09년 6월 기준 55.7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09년 2월(57.0)부터 꾸준히 하락

❍ 집주인들이 최근 집값 급등세에 동승해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

■ 따라서, 전세가격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해 집값의 주요 결정 요인인 주택대출을 줄일 필요

❍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는 만큼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의 부채상환압력 증가로 갑작스런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성 상존

·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로 금리 1%p 상승 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 4조 8천억 원 증가

❍ 근본적으로 부채문제는 또 다른 부채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경재 연구위원(02-729-6522)

Ⅲ. 도요타자동차 부진 원인과 위기극복 노력

세계 최강 도요타자동차, 사상 최대 영업손실 : 위기의 시작인가?

■ 도요타자동차의 2008년도(회계년도) 영업이익은 -4,610억엔(약6.14조원)으로 창사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

❍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1999년(7,760억엔) 이후 매년 급성장하여 2007년에는 3배가 넘는 2조 2,704억엔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배나 증가

· 2008년에는 신차판매에서 GM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

※ 자동차 업계에서 세계 1위가 바뀐 것은 약 80년만의 사건

❍ 그러나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판매급락으로 매출액은 20% 이상, 영업이익은 2조 7,313억엔 급락한 4,610억엔 손실로 나타나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

※ 도요타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은 71년만의 사건

도요타 자동차의 실적 추이

(단위 : 십억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05	21,036	1,878	1,372
2006	23,948	2,238	1,644
2007	26,289	2,270	1,717
2008	20,529	-461	-437

자료 : 3월 회계결산으로 회계년도는 당해년 4월~차기년 3월, 1/4분기는 4~6월

■ 2009년 1/4분기(4~6월)에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타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위기의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 확산

❍ 2009년 1/4분기(4~6월) 실적발표 결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3% 감소한 3조 8,360억엔에 그침

❍ 영업이익 역시 전년동기대비 6,074억엔 감소한 1,948억엔 손실을 기록

❍ 세계최강의 생산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오던 도요타의 연속적인 실적 악화는 자동차업계 뿐만이 아니라 세계 제조업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위기를 불러온 3가지 원인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판매급감과 엔화강세

❍ 2009년 1/4분기 도요타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140만 1천대로 전년동기대비 78만 5천대(35.9%) 감소

· 일본내수 :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한 40만 7천대

· 해외판매 : 전년동기대비 40.6% 감소한 99만 4천대

❍ 해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북미지역에서의 판매급감이 결정적

· 금년 1/4분기 북미지역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28억엔 감소한 -37억엔을 기록

❍ 더욱이 2000년 48.3%에 불과했던 일본 국내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2008년 64.5%까지 높아지면서, 엔고에 취약한 구조로 변모한 것이 직격탄

· 2008년 9월 109.3엔이던 엔/달러 환율이 2009년 1월 90.6엔까지 급락

❍ 도요타와는 달리, 혼다는 북미시장 보다는 내수판매 활성화, 신흥국 진출 전략 등을 전개하여 충격을 덜 받고 있음

· 혼다자동차는 판매제품에서도 소형차와 중대형 오토바이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다각화

도요타자동차 지역별 판매실적

(단위 : 대)

	2008년 1/4분기	2009년 1/4분기	증감
일 본	512,874	407,043	-105,831
북 미	728,679	387,078	-341,601
유 럽	300,998	212,537	-88,461
아시아	262,279	194,579	-67,700
기 타	381,693	199,679	-182,014
합 계	2,186,523	1,400,916	-785,604

둘째, 시장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능력의 저하

❍ 2008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미국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을 확대

· 일본의 장기침체에 따른 내수침체와 치열한 자국업체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중대형차 중심의 북미시장에 수출을 확대

· 북미 지역의 판매의존도가 2004년 30.2%에서 2007년 33.2%로 증가한 반면, 신흥시장 판매비중은 11.9%(2008년)에 불과

· 반면, 혼다는 금융위기를 예견하고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했으며, 금년 여름에는 북미자동차 공장의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결정하는 등 수요감소 피해를 최소화

❍ 금융위기 이후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업체는 공통적으로 신흥시장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

· 특히 2008년 1,900억엔의 영업이익을 낸 혼다자동차는 아시아시장을 공략하며 지역 다각화를 추진

· 2009년 상반기 흑자 업체인 스즈끼와 폭스바겐, 피아트 등 3사의 신흥시장 판매 비중은 각각 59.3%, 46.8%, 41.4%로 경쟁사에 비해 신흥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

❍ 또한 고유가 및 소득감소 등으로 중 · 대형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중 · 대형차종 위주의 라인업을 편성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요타의 신모델을 보면, 중대형차급의 모델(37종)이 소형급모델(18종)보다 두 배 이상 많음

· 동기간 소형차 시장 규모가 2,400만대에서 3,300만대로 성장한 반면, 중 · 대형차 시장은 3,500만대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의사결정

· 금융위기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스즈끼와 피아트는 전체 라인업 중 소형차 비중이 99.2%, 88.3%에 이르고 있으며 폭스바겐도 73.7%의 높은 수준을 기록

· 반면, 도요타의 소형차 비중은 포드의 53.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64.3%에 불과

셋째, 도요타의 최고 강점인 "도요타웨이" 상실

❍ 급격한 성장위주 전략으로 인해 도요타웨이의 중심인 인적자원 육성에 문제가 발생

· 해외공장 증설 및 생산량 급증에 따라 도요타 생산시스템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원동력인 숙련공 등의 인적자원에 공백이 발생

· 생산 경험이 거의 없는 작업자를 그룹 리더에 임명할 정도로 인력 육성에 문제

· 8억달러를 들여 2006년부터 조업을 개시한 텍사스 공장의 경우, 종업원 생산능력 5단계 등급 가운데 최하등급인 1단계의 작업자 비중이 70%에 달함

❍ "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도요타 생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 최소한의 재고를 기본으로 하는 도요타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생

· 품질 불량, 설비 고장 등의 이상 현상을 발견했을 경우, 작업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라인을 중단해 문제를 해결하는 "안돈(行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

· 도요타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우선시하여 문제 해결을 추후로 연기

· 이는 와타나베 사장과 키노시타 부사장이 경영기획 및 인사 노무 등의 전문가이기는 하였지만, 영업이나 생산현장에서의 경험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의견이 존재

· 그 결과, 도요타의 장점이었던 낮은 품질불량률에 문제가 발생(특히, 캘리포니아 공장의 경우 다른 해외 공장에 비해 불량률이 2배 이상 높았음)

위기극복 움직임 : 고객과 현장중심의 혁신적인 문화 재구축

■ 최근 도요타는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중시 전략을 수정하여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

❍ 수립중인 새로운 중장기 전략인 "마켓비전"은 기존의 글로벌 마스터플랜의 목표제시형 계획과 달리 주요 지역별 시장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

· 목표제시형 계획에서는 전체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수익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이었으나 "마켓비전"에서는 각 지역별 영업현장에서 판매상황을 예상하고 창출 가능한 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는 Bottom-up 방식임

■ 도요타 조직문화의 재구축

❍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현장 중심의 혁신문화를 재구축

· 2월 사장 직속조직으로, 영업 및 생산 등 현장에서 선발된 40대 젊은 관리직을 중심으로 '내일의 도요타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조직개혁방안을 강구

❍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가문의 도요타아키오가 사장으로 취임

· 사장승격 내정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사장이 되고 싶다"고 언급

· "막대한 이익보다 좋은 제품과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 "도요타의 성장은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요타 원류로의 회귀를 강조

내용문의 : 중소기업팀(02-729-6582)

Ⅰ. 해외경제

전반적으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불안요인도 상존

■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미 제조업의 회복세도 완연해짐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의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큰 폭 개선

· 미국과 유로는 하락폭이 급격히 완화(△1.6% → △0.3%, △2.5% → △0.1%)
일본과 싱가폴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3.1% → 0.9%, △3.2% → 4.8%)

○ 美 제조업 회복이 지속되어 경기확장국면에 진입, 생산 및 고용 개선이 기대

· 美 8월 ISM 제조업 활동지수 52.9로 '08.1월 이후 처음 50이상으로 상승, 또한 제조업 재고는 10개월 연속 감소, 신규주문은 3개월 연속 증가하여 회복세 지속 예상

■ 또한, 미국의 부동산 경기도 지속적으로 개선 中

○ 美 주택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로 반전

· 美 7월 기존주택 판매와 신규주택 판매는 4개월 연속 증가
※ 6월 3.6% → 7월 7.2%, 6월 9.1% → 7월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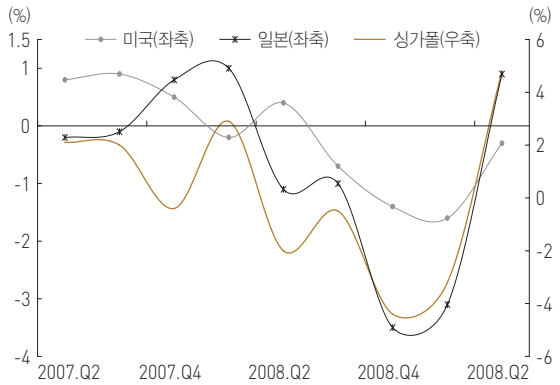
· 6월 S&P Case-Shiller의 20대도시 주택가격지수도 3년간 하락하다가 2개월 연속 증가
(4월 -0.6% → 5월 0.5% → 6월 1.4%)

■ 그러나, 당분간 실업률 상승 지속으로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 예상되며 상업용 부동산 부실 또한 회복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美 8월 실업률은 9.7%를 기록하여 '83.6월 10.1% 이후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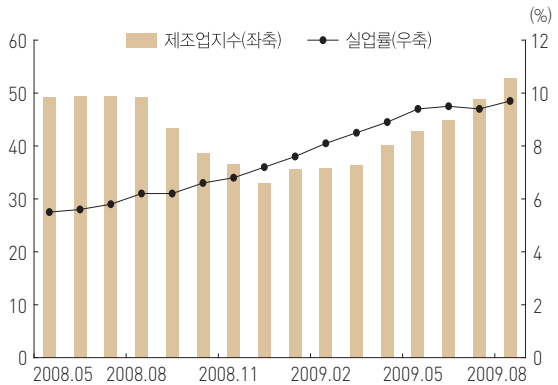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고점대비 -39%)하고, 2/4분기 상업용 모기지의 대손상각률(2.24%)과 연체율(7.7%)이 전년 동기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주 : 전분기대비
자료 : Datastream

美 제조업지수와 실업률



자료 : 美 공급관리협회, 美 노동부

Ⅱ.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경제주체의 '부채'는 우려할 수준

■ 국내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

❍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전기대비 2.6%) 성장

❍ 체감경기 측면에서도 8월 제조업 업황지수(BSI)가 86으로 1년 4개월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14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하지만 과도한 차입을 통한 성장세는 우려수준

❍ '08년 제조업 현금흐름보상비율이 51.4%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동 비율이 22.3%로 통계집계('98년) 이후 최저로 하락

·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영업활동 현금수입+이자비용)을 (단기차입금+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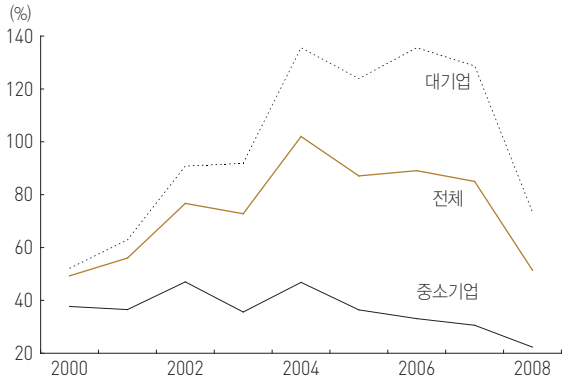
❍ '09년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배율이 1.39배로 사상 최고치

·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으로 송금한 금액을 빼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하여 산출되는데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

■ 부채부실화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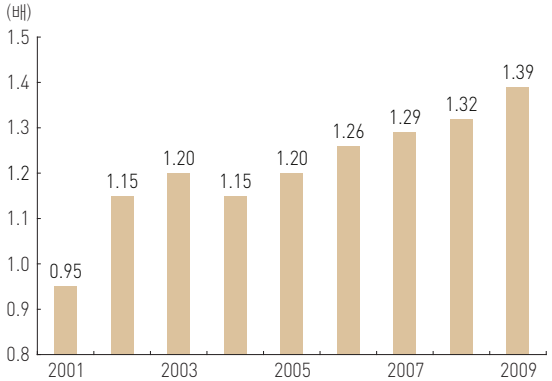
❍ 수요불안, 실업률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영업수입과 가계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힘들지만 향후 금리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은 가중될 전망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추이



주 : 채무상환능력은 현금흐름보상비율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추이



주 : 채무상환능력은 6월 기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배율
자료 : 한국은행

Ⅲ.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경기는 2개월 연속 개선되어 2005년 기준 지수(100)를 회복

■ 7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면서 9개월 만에 양의 회복세로 전환

❍ 금월 생산증가율은 기저효과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실제 증감속도를 나타내는 전월대비증가율은 6월 5.4%에서 7월 2.2%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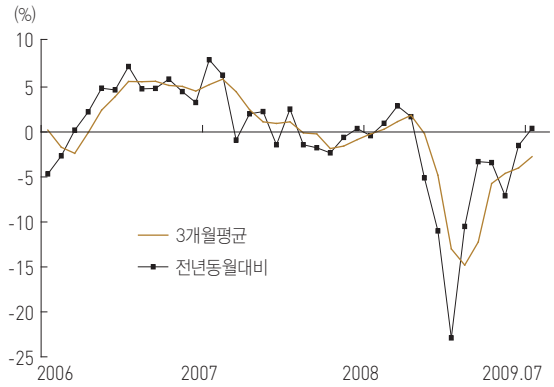
· 작년 7월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생산증가율이 0.4% 감소했으므로 올해 생산증가율의 증가세 전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음

■ 상승세를 유지하던 설비투자 및 가동률의 하락으로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 혹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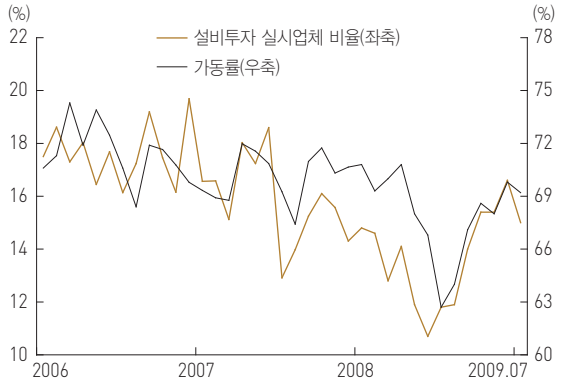
❍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했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전월에 비해 1.6%p 하락한 15.0%를 기록

❍ 평균가동률도 전월대비 0.6%p 하락한 69.2%를 기록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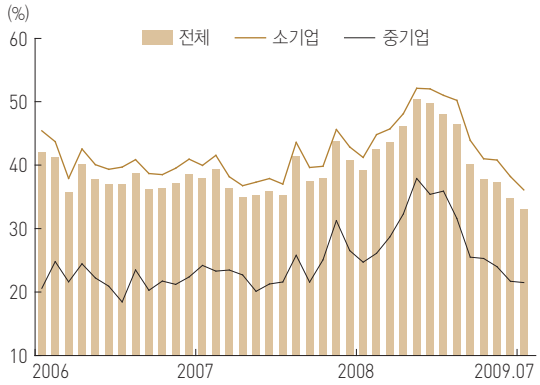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이 33.1%로 하락하여 중기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06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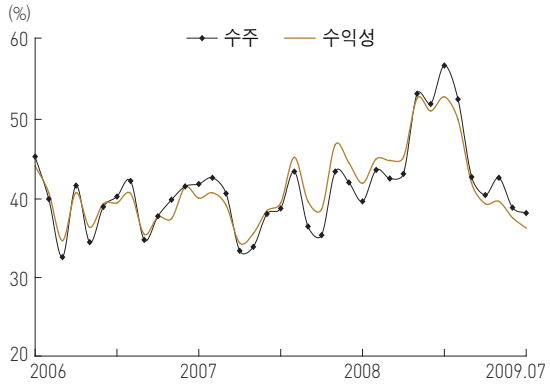
❍ 전자, 기계, 자동차 부문의 대기업 실적 개선으로 중소제조업 생산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하반기 중기대출 위축 및 경기개선 기대감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업체비율 추이



수주 및 수익성 악화업체비율 추이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5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던 고용 동향은 고용 증가 업체비율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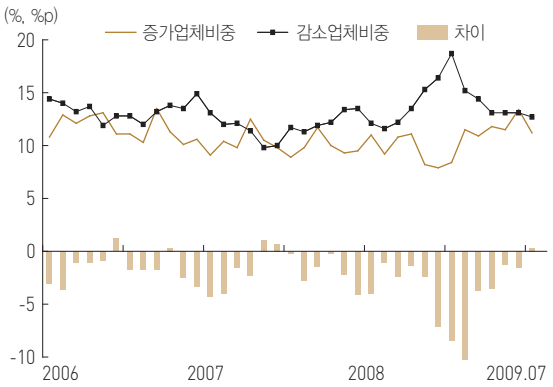
❍ 종사자수 증가 업체비율(13.4% → 11.2%)이 종사자수 감소 업체비율(13.1% → 12.7%)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출하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재고율(재고/출하)은 전월대비 증가 (106.3% → 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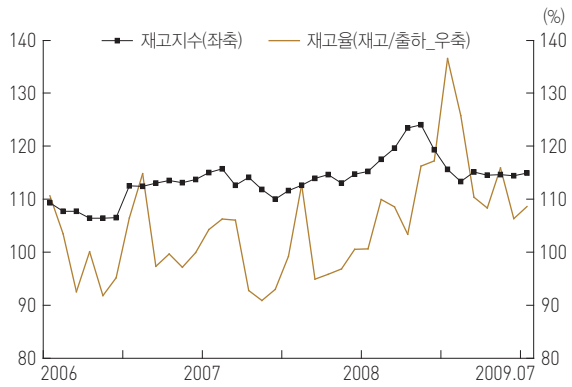
❍ 재고지수가 소폭 증가(114.4 → 114.9)하였으며, 출하도 감소(107.6 → 105.8)하여 재고율은 전월에 비해 증가

❍ 중소기업 출하는 지난해 10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현재(△7.6)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중소기업 재고율 추이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주 : 2005년 = 100
자료 : 통계청

Ⅳ. 금융시장

국내외 증시의 조정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인 전망

■ 한은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시그널로 국고채 금리(3yr)는 소폭 상승될 전망

❍ 9월 금통위 결과 기준금리 2.0%로 7개월째 동결되었으나 출구전략의 차별화 가능성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

❍ 그러나 단기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과 주식시장 조정 등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

❍ 기준금리는 당분간 2.0%로 유지될 전망이며, 국고채 3년물의 금리도 상승하여 4.4% ~ 4.7%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한국경제의 회복기대로 하락압력이 높은 편이나, 국내외 증시의 조정 가능성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의 국내 주식 · 채권 순매수세 지속, 외환보유액 증가 및 외화차입여건 개선, 통화스왑 자금의 회수 등 외환수급이 안정되면서 8월초 연중 최저치(1,218원) 경신 및 환율 변동성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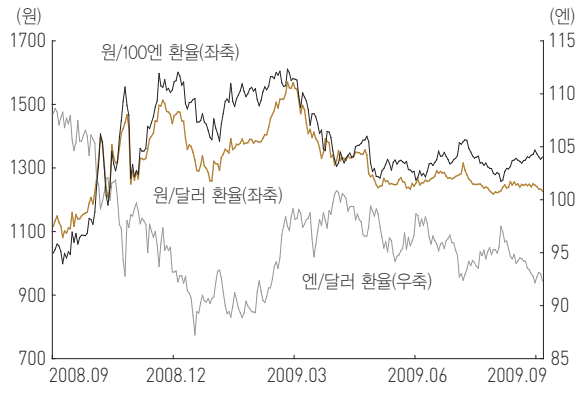
❍ 또한, 출구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美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 시각을 감안하면 여전히 환율하락 압력이 큰 상황

❍ 그러나, 국내외 증시의 조정 가능성, 특히 중국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축소 예상 등은 원/달러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금리 추이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Ⅴ. 자금흐름

예금금리 인상과 결제성 자금의 유입으로 은행수신 사상 처음 1,000조원 돌파

■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금리 인상과 결제성 법인자금 및 펀드환매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 증가한 반면, MMF 및 주식형펀드 환매 증가로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세 지속

❍ 8월 은행 수신 증가폭(13.5조)은 지난 2월(20.6조)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

▮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8월말 잔 액
	연중	8월	연중	8월	6월	7 월	8 월	
은행 수신	59.6	5.0	104.3	18.7	7.7	-0.6	13.5	1,004.6
(수시입출식[1])	-6.6	-3.0	11.8	3.2	8.3	-14.6	9.5	276.9
(정기예금)	11.9	-0.5	63.0	6.7	-3.7	8.1	4.1	352.3
(CD)	28.8	5.4	8.2	0.7	2.3	4.2	0.3	112.5
(은행채)	34.0	3.2	31.2	7.4	2.1	0.0	-1.2	192.5
자산운용사 수신	61.8	4.0	63.0	4.0	-11.5	-2.2	-7.8	364.2
MMF	-10.4	-2.8	42.2	4.3	-12.7	-2.5	-6.5	95.1
주식형	69.9	6.0	23.9	-0.9	-0.8	-0.3	-2.8	134.1
채권형	-9.6	0.3	-10.5	0.4	2.1	1.8	1.8	43.6
혼합형	-3.3	-0.1	-5.4	-0.6	-0.3	-0.8	-0.7	32.9
신종펀드[2]	15.3	0.7	12.9	0.8	0.2	-0.5	0.3	58.4
증권사 CMA	18.5	1.8	3.5	0.4	-0.1	1.8	-0.3	39.8

주 : 1) 요구불예금 포함 2)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금융투자협회

■ 정부의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 가계대출은 증가폭을 확대

❍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MOU 준수 노력, 법인세 납부에 따른 대출 수요 등으로 증가폭 확대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동향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8월말 잔 액
	연중	8월	연중	8월	6월	7월	8월	
기업대출[1]	79.3	5.1	78.3	5.2	-1.6	2.4	3.6	511.1
(대 기 업)	12.5	1.0	30.3	2.9	-2.5	1.8	-0.0	79.5
(중소기업)	66.8	4.0	48.0	2.2	0.9	0.5	3.6	43.5
기업직접조달[2]	12.5	0.3	26.6	1.6	-0.7	0.3	0.0	-
가계대출[3]	17.8	3.4	25.0	2.2	4.0	2.6	3.0	405.1
(주택담보대출)	4.6	0.6	18.1	1.0	3.5	3.4	2.8	260.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2.8	6.8	1.2	0.5	-0.7	0.2	143.3

주 : 1)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직접조달 = CP순발행 + 회사채 순발행 + 주식발행 3)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Ⅰ. 글로벌 녹색규제의 현황과 전망

녹색규제 강화는 막을 수 없는 글로벌 추세

■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환경규제는 50여개, 2020년까지 90여개로 확대 추세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 전자 · 화학제품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도입

❍ 12개 생활용품에 대해 시행하는 환경마크(Eco-label) 부착 제도도 우리에겐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에너지 · 물 사용량이 적은 친환경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무공해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마크를 부여

·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음

❍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 및 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데 반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전자제품, 자동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유럽의 대표적 환경규제 사례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대형 및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기타 조명기기, 의료용기기 등 • 생산자에게 분리수거 및 처리의 의무 부여
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ROHS)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전기 · 전자 제품의 생산,사용 및 처리시 환경과 인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함 • 전기 ·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4가지 중금속, 브롬계 난연물질에 대한 사용을 금지
***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EU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 사용할 경우 해당업체는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연간1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해 취급 화학물질 양과 독성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

■ 미국, 일본, 중국도 유럽의 환경규제에 맞서 각종 규제를 강화

❍ 미국은 주별로 폐전자제품 재활용 및 6대 유해물질 규제 방안을 추진 중

❍ 일본과 중국은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규제

■ 새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짐

❍ EU의 신화학물질규제(REACH)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개 물질당 수천만원에서 최대 30억에 달함(사전등록비, 컨설팅비, 등록대행비, 유해성 시험분석비 등)

글로벌 녹색규제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글로벌 녹색규제로 인해 자동차 · 전자 · 화학 · 섬유 · 생활용품 등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은 앞으로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될 것

■ EU의 REACH 시행에 따라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업무대행 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유럽에는 환경컨설팅 및 등록대행 기관만 100곳이 넘을 정도이며 국내 유해성 시험분석 및 컨설팅 업무 역시 외국 컨설팅 업계가 주도하고 있음

❍ 국내 수출기업에게는 '수출장벽', 외국컨설팅 기관에게는 '황금산업'이 될 가능성 존재

■ 새로운 녹색규제에 대응력을 키워야 하며, 국가 및 지역별 규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임

❍ 녹색규제는 국가 및 지역별로 구분한 뒤 파악해야 함

· EU 전역에 적용되는 지침 · 규칙을 다 지켰더라도 각국 개별 규제를 모르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없음

·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EU 회원국 중 일부는 EU법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녹색 규제 내용이 기업의 사업 기간 중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글로벌 녹색규제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http://www.reach.me.go.kr)

REACH 기업지원센터 (http://www.reach.or.kr)

내용문의 : 기은컨설팅센터 유휘동과장(02-6322-5178)

Ⅱ. 중소기업 옴브즈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중소기업 옴브즈만

■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애로 사항을 상시적 ·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개설

기업호민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OFFICE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OMBUDSMAN

❍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접수하여 상담하고, 해결방안 도출 및 사후관리를 실시

❍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완화 및 해소, 고품질 규제로의 유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기업호민관실('09. 7. 23 개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정부가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운영기관

■ 기업호민관실의 비전 및 목표는?

❍ VISION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호민관 제도 구축 · 운영

❍ MISSION : 소통과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호민관실의 발전전략은 3大전략, 5大과제

■ 3대 전략

❍ 열린 협력 네트워크 조직, '호민.NET'

· 외부협력조직(유관 조직), 지역별 · 분야별 자문위원(지역 · 전문호민관) 등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여 각종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외부협력조직 : 다양한 분야의 현장 규제애로 수집

· 지역호민관 : 지방기업의 규제애로 수집, 해소

· 전문호민관 : 각종 규제애로 자문 등 기업호민관의 전문성 제고

❍ 열린 규제검색 · 해결, '규제 2.0'

· 개방과 참여의 온라인 광장인 '규제 2.0'을 구축. 규제검색, 규제in, 호민채널 서비스 제공

· 규제검색 : 포털 검색을 통한 관련 규제 파악

· 규제in : 집단지성을 활용한 규제 해결 방안 도출

· 호민채널 : 현장 중소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메일, 뉴스레터, 블로그 등)

❍ 기업인 시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 평가, **'열린평가'**

· 중소기업 규제개혁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정부기관의 공정한 규제집행 여부와 대응노력을 평가

·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규제개선 유도

5大 중점 추진과제

❍ 「非보복(Non-Retaliation) 문화」 정착 유도

· 규제 민원 제기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非보복 문화' 정착 유도

❍ 기업가 정신 함양을 저해하는 규제 요인 개선

·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요인을 발굴 및 개선 건의하여, 고품질 창업을 촉진

❍ 대 · 중소기업 공정거래와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제 개선

· 대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하여 新경제 추진동력 확보

❍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른 규제 개선

·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규제 개선 촉진

❍ 소기업 3대 과제관련 규제 개선

· 소기업 3대 과제(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 공공구매 촉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촉구

내용문의 : 기업호민관실 김경록 전문위원(070-7706-1613)

Ⅲ. 서평

『일본전산(日本電産)』 이야기

불황기 10배 성장,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1위, 신화가 된 회사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속에서도 매출 10배, 영업이익 24배의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낸 '교토식 경영의 신화' 일본전산(日本電産)의 나가모리 사장은 말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자금을 융통시켜 살아갈 수도 있고, 기회도 많으니 적당히 하면서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불황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인재는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 누가 우리 사람인지도 어려울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스피드가 5할이다. 중노동이라 할 만큼의 노력이 3할이다. 능력은 1할 5푼, 학력은 고작 3푼. 회사 지명도라야 2푼 값어치일 뿐이다. 이것이 불황을 이기고 돈 버는 기업의 전략 안배다."

위기에 강한 직원이 회사를 살린다!

일본전산의 나가모리 사장은 기업의 존속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고용'이라고 꼽는다. 일본전산은 이력서 대신에 '큰 소리로 말하기', '밥 빨리 먹기', '화장실 청소' 등 상식을 파괴한 시험을 통해 남들이 싫어하는 일, 기본이 되는 일을 잘하는 인재를 채용했다.

기본이 탄탄하고 인내심과 끈질김을 지닌 사원들은 누구보다 정열적으로 일했다. 주요 고객사인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원인 모를 문제로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설비에는 다른 회사들이 납품한 모터가 들어있었고, 일본전산의 납품수량은 미미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주말이라며 수리를 미루고, 모터 문제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일본전산의 직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공장으로 달려가 본사 기술연구소 담당자, 설계 담당자, 실험 담당자 등과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 냈다. 그리고 현장 소식을 보고 받은 공장 사장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 전량을 일본전산의 신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목소리가 크고 밥을 빨리 먹는다고 뽑힌 인재이니 '정열적'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열정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실패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준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의 조직 운영 원칙은 '감점주의'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하면 점수가 깎이고, 점수가 깎이지 않아야 승진한다. 하지만 일본전산의 조직 운영 원칙은 '가점주의(加點主義)'다.

"회사를 키우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점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감점주의를 도입하면 머지않아 인재가 아무도 남지 않는다.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까지 잡는 게 감점주의다."

나가모리 사장이 똑똑하지 않은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면서 얻은 교훈이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자신이 모든 업무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본전산의 '열정 문화'를 통해 직원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세계 1등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전 세계 전력의 50%는 모터가 소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터'분야에 집중한 결과 일본전산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면에서 1위를 점하게 됐다. 현재 일본전산의 기업 비전은 '돌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서 NO.1'이다. 이렇듯 끊임없이 회사가 가야 할 방향, 목표로 삼아야 할 지점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미래 가치에 대해 집중해왔다. 나가모리 사장은 CEO들에게 말한다.

"어떤 회사건 CEO는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현재에 3할, 미래에 7할 정도의 비율로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내 조직들도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패턴으로 유지된다."

정말 강한 기업은 위기에 더 강해진다.

성공이란 거창하고 멀기만 한 미래의 그림이 아니며 바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갈 때 비로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일본전산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일을 '지루하게 감내해야 하는 노동'이라 생각하느냐, '도전할 만한 흥미진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직원의 하루, 회사의 미래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김 문 영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지표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5월	6월	7월
성장	GDP(%)	5.1	2.2	-4.2	-2.2			
	(전기대비)			0.1	2.6(잠정치)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1.1	100.0	92.3	94.2	93.8	95.4	96.3
	선행지수전년동월비(%)	6.9	0.9	-3.5	2.9	2.6	5.8	7.9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6.8	3.0	-15.5	-6.2	-9.0	-1.2	0.7
	생산자제품출하(%)	7.1	2.4	-14.7	-5.8	-8.7	-0.6	-1.4
	생산자제품재고(%)	5.7	12.3	-5.7	-13.3	-13.5	-16.6	-15.0
	제조업가동률(%)	80.1	77.2	65.8	73.6	72.9	76.6	78.7
	제조업BSI(실적치)	85	74	49	73	74	77	81
소비	소비재판매(%)	5.1	1.0	-4.9	1.5	1.6	7.5	1.9
	소비자심리지수			84	103	105	106	109(114)
투자	설비투자추계(%)	8.2	-4.3	-17.5	-13.7	-16.2	-4.9	-18.2
	기계수주(%)	19.8	-5.5	-36.0	-11.2	-21.3	2.1	7.3
	건설기성액(%)	6.6	4.7	4.5	6.6	-0.7	15.2	1.8
	건설수주액(%)	19.3	-9.0	-16.5	-2.0	-18.5	17.9	2.9
고용	실업률(%)	3.2	3.2	3.8	3.8	3.8	3.9	3.7
	취업자증가율(%)	1.2	0.6	-0.6	-0.6	-0.9	0.0	-0.3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6.4	3.4	-0.1	1.6	0.5	2.8	0.8
물가	소비자물가(%)	2.5	4.7	3.9	2.8	2.7	2.0	1.6(2.2)
	(전월비)					0.0	-0.1	0.4(0.4)
	생산자물가(%)	1.4	8.6	4.2	-1.0	-1.3	-3.1	-3.8(-3.0)
	(전월비)					-0.8	-0.3	1.2(0.6)
	전국주택매매(%)	9.0	4.1	1.6	-0.6	-0.6	-1.0	-1.1(-1.0)
	서울아파트매매(%)	16.0	5.4	0.7	-2.6	-2.8	-2.8	-2.1(-1.7)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58.8	-64.1	85.8	131.8	35.0	54.3	44.0
	수출증가율(%)	14.1	13.6	-24.9	-20.3	-28.6	-12.5	-21.8
	수입증가율(%)	15.3	22.0	-32.8	-36.1	-40.1	-32.9	-35.7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는 8월 수치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5월	6월	7월
중소 제조업	산업생산(전체,%)	3.9	-1.2	-12.5	-3.7	-7.1	-0.9	0.4
	(중화학공업,%)	3.5	-1.7	-15.2	-4.6	-8.0	-1.0	1.1
	(경공업,%)	4.6	0.0	-5.9	-1.9	-4.8	-0.9	-1.3
	설비가동률(전체,%)	70.4	69.7	64.6	68.8	68.0	69.8	69.2
	(소기업,%)	69.4	69.1	63.3	67.4	66.6	68.4	67.4
	(영세기업,%)	65.1	64.1	58.6	62.4	61.9	63.6	62.3
	(중기업,%)	77.0	75.5	69.8	74.4	73.4	75.4	76.2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7.3	13.9	12.6	15.8	15.4	16.6	15.0
	(소기업,%)	15.1	11.8	9.5	12.7	12.5	13.4	11.9
	(영세기업,%)	10.1	7.5	6.2	8.5	7.8	9.6	8.1
	(중기업,%)	33.1	28.8	24.9	29.0	27.6	31.2	28.2
	자금사정악화업체(전체,%)	37.0	42.4	44.8	36.6	37.3	34.8	33.1
	(소기업,%)	39.1	44.4	48.4	40.0	40.8	38.2	36.1
	(영세기업,%)	45.1	48.5	50.0	42.6	42.6	41.5	36.5
	(중기업,%)	21.9	28.1	31.0	23.7	24.0	21.7	21.5
	중소제조업고용(증가,%)	10.8	9.8	10.3	12.2	11.5	13.4	11.2
	(감소,%)	12.4	12.9	16.1	13.1	13.1	13.1	12.7
	(증감차,%p)	-1.6	-3.1	-5.8	-0.9	-1.6	0.3	-1.5
	BSI 실적(기준=100)	84	71	56	87			
	전망(기준=100)	106	98	59	90	104(3/4분기)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3	0.04	0.02	0.02
	신설법인(월평균, 개)	4,505	4,238	4,152	4,820	4,029	5,392	5,501
	부도법인(월평균, 개)	126	157	158	113	101	84	86

주 :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6월	7월	8월
자금시장*	총수신(은행)	5.0	8.7	4.5	8.5	7.7	-0.6	13.5
	(자산운용사)	5.1	5.3	8.6	-3.8	-11.5	-2.2	-7.8
	가계대출	1.5	2.1	1.0	2.6	4.0	2.6	3.0
	(주택담보대출)	0.4	1.5	2.5	2.4	3.5	3.4	2.8
	기업대출	6.6	6.5	3.6	0.9	-1.6	2.4	3.6
	(대기업)	1.0	2.5	0.5	-1.5	-2.5	1.8	-0.0
	(중소기업)	5.6	4.0	3.1	2.4	0.9	0.5	3.6
금리	콜금리(%)	4.77	4.78	2.09	1.88	1.93	1.93	1.98
	국고채3년(%)	5.24	5.27	3.64	3.89	4.09	4.09	4.42
	회사채3년(AA-, %)	5.70	7.02	6.85	5.35	5.21	5.46	5.74
환율	원/달러(₩)	929	1,103	1,415	1,289	1,261	1,264	1,238
	엔/달러(¥)	117.8	103.3	93.8	97.4	96.6	94.5	95.0
	원/100엔(₩)	789	1,077	1,510	1,323	1,306	1,338	1,304
	달러/유로($)	1.371	1.471	1.306	1.362	1.402	1.407	1.426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	4.63	3.64	2.70	3.30	3.71	3.53	3.58
	일본국채10년(%)	1.69	1.49	1.29	1.46	1.48	1.35	1.37
유가	WTI($/bbl)	72.4	99.8	43.3	59.8	69.7	71.6	68.0
	Brent($/bbl)	72.7	98.3	45.7	59.9	69.3	65.8	67.3
	Dubai($/bbl)	68.2	94.3	44.3	59.3	69.4	65.0	66.9
원자재	금($/온스)	696	872	908	922	946	934	989
	전기동($/톤)	7,096	6,884	3,473	4,690	5,030	5,219	4,888
	알루미늄($/톤)	2,662	2,620	1,397	1,524	1,605	1,695	1,843

주 : 기간중 평균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기준 증감액, 연간·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 증감액